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은미^{1*}, 홍지연², 이은경³

¹한국간호교육평가원, ²호원대학교 간호학과, ³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on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Eun-Mi Kim^{1*}, Ji-Yeon Hong², Eun-Kyung Lee³

¹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²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³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참여와 임상실습교육환경, 그리고 교수에 대한 신뢰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D시와 J도의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연구도구는 임상실습교육환경(CL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문항, 교수신뢰(PTS, Professor Trust Scale) 27문항, 학업참여(UWES-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s) 13문항으로 구성된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1세였으며 87.4%가 여학생이었다. 3학년이 50.5%, 4학년이 49.5%였으며 직전학기 성적은 중하 36.9%, 중상 35.1%, 상 16.2%, 하 11.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업참여는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교수신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는 학업참여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직전 학기 성적도 학업참여에 영향으로 주어 이러한 변수들은 학업참여를 36.1%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신뢰변수의 하부요인을 중심으로 교수역량강화 방안, 교수-학생 간 신뢰증진프로그램, 더불어 임상실습교육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등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professor trust, and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the basis for nursing education improvement related to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Measurement parameters consisted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 items, professor trust (PTS, Professor Trust Scale) 27 items, and academic engagement (UWES-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s) 13 item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as follows: average age 21.91 years, females 87.4%, third grade 50.5%, fourth grade 49.5%, and an academic score just before the semester of high 16.2%, middle high 35.1%, middle low 36.9%, or low 11.5%.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professor trust (PTS), and academic score just before the semester affected academic engagemen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professor's efforts to give students credibility should be followed for academic engagement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scor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nursing students, professor trust.

*Corresponding Author : Eun-Mi Kim(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Tel: +82-10-3336-1937 email:kem1937@kabone.or.kr

Received February 28, 2018

Revised April 9,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복잡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1]. 역동적인 임상간호현장에서도 환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과 환자와 교감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은 간호전문성의 근간이 되는 간호실무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ATC (Assessment & Teaching Competency) 21st project[2]의 이론적 개념들에 의하면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이 통합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술은 의사소통능력을 기반으로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능력(Collaboration & Teamwork), 정보활용능력(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치매국가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건강보험정책의 변화, 인공지능 암치료 프로그램 왔든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가정방문간호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간의 다양화 등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간호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불어, ICN[3]과 WHO[4]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간호사의 핵심 역량 역시 전문가적 실무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준의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복잡한 건강문제를 보건의료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문제의 발생으로 환자안전법(2016)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 제9조 환자안전기준에 근거하여 환자 안전을 위해 실습학생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교육의 교육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2015), 의료법(2012)의 개정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제가 실시되면서, 간호교육평가인증기준[5]에서 제시하는 간호임상실습기관으로서 자격여건을 갖춘 보건의료기관은 한정적인데 반해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6]. 이에 따라 간호교육의 주요한 영역인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이는 간호교육기관은 물론 간호학생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있다.

대학입학을 목표로 긴장된 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갑

작스럽게 자유스러운 대학생활을 맞은 간호학생들에게 대학은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교수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교수신뢰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7], 전공만족과 학업지속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9-10]이며,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생들이 담당교수에게 바라는 내용은 임상실습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바라는 내용은 존중과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11]. 간호학은 이론교육 뿐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이 실무에 적용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임상실습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12] 간호학생의 역할 수행에서의 자신감 향상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13].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요소로 학생들의 학업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학업참여란 성취하고자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습활동과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자 동기적인 상태를 말한다[14-15]. 높은 학업참여는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높은 만족감을 성취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14-15]. 최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간호학생들의 비중이 양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16] 학과 적응력 향상과 유익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학업참여는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임상실습 환경과 교수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업참여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으로써 간호교육과정 개선과 나아가 간호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의 차이를 파악한다.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2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및 학업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D시와 J도 소재 2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들이다. 대상자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효과크기 $f^2 =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 예측변수 8개로 산출한 결과 109명이 산출되었다.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10% 수준을 추가하여 120명에게 자료를 배부하였고, 116부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을 위해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편중된 자료는 제외하고 111부를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임상실습교육환경은 Dunn과 Burnett[17]이 개발한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CLE)를 Han[18]이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1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3문항, 병동 분위기 3문항, 간호관리자의 책임 5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 만족 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측정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63-.85였고 Han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56-.8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요인별 .61-.89였고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교수신뢰는 Jeong과 Park[19]이 개발한 교수신뢰 측정 도구(PTS; Professor Trus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8문항, 전문성 8문항, 강의능력 5문항, 지도력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이다. 측정값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신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80-.85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 요인별로 .81-.89였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였다.

학업참여는 Schaufeli 등[20]이 개발한 17문항의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UWES-S)를 Choo와 Son[21]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13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열정 6문항, 헌신 3문항, 몰두 4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63-.81이었으며 Choo와 Son[21]의 연구에서는 .77-.82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요인별로 .82-.87이었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였다.

2.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수행 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2인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보조원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발적 참여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짐과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만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서명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

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응답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연구 참여를 취소하여도 선물은 회수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제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학업참여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모형 3에서는 교수신뢰를 추가 투입하여 독립변수들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3. 결론

3.1 연구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1세였으며, 87.4%가 여학생이었다. 3학년이 50.5%, 4학년이 49.5%였으며 직전 학기 성적은 중하 36.9%, 중상 35.1%, 상 16.2%, 하 11.5%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용이해서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29.7%, 전문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3%,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14.4%였다. 성적 때문이라는 응답은 4.5%로 가장 적었다(Table 1).

3.1.2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

대상자가 인식한 임상실습교육환경 정도는 3.28점이었으며, 5개 하부 요인 중 학생 만족이 3.55점, 환자와의 관계가 3.49점으로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았다. 반면,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가 3.19점, 간호관리자의 책임이 3.18점, 병동분위기가 2.90점으로 평균평점보다 낮게 나

Table 1. Differences in UW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r M±SD	UWES-S		
			M± SD	t/F(p)	Scheffe
Age (yrs)	Average	21.91±1.90			
	≤21	59(53.2)	3.15 ± 0.66	1.45(.154)	
	≥22	52(46.8)	2.98 ± 0.56		
Sex	Female	97(87.4)	3.10 ± 0.62		1.27(.206)
	Male	14(12.6)	2.87 ± 0.60		
Academic year	Third	56(50.5)	3.16 ± 0.59	1.56(.121)	
	Fourth	55(49.5)	2.98 ± 0.63		
Academic score*	High ^a	18(16.2)	3.42 ± 0.63	8.71(<.001)	a>c,d
	Middle high ^b	39(35.1)	3.26 ± 0.46		
	Middle low ^c	41(36.9)	2.89 ± 0.54		
	Low ^d	13(11.7)	2.57 ± 0.76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Getting a job easily	40(36.0)	2.94 ± 0.68	1.29(.277)	
	Aptitude	33(29.7)	3.22 ± 0.60		
	Academic score	5(4.5)	3.08 ± 0.40		
	Professionals	17(15.3)	2.95 ± 0.57		
	Other's recommendation	16(14.4)	3.21 ± 0.55		

UWES-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 Scheffe test

Table 2. Degree of Variables

(N=111)

Variable	Range	Min	Max	M±SD	Item M±S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90	27	85	62.35 ± 10.14	3.28 ± 0.53
staff-student relationships	3-15	4	15	9.59 ± 2.07	3.19 ± 0.69
Hierarchy and ritual	3-15	4	15	8.70 ± 2.20	2.90 ± 0.73
Nurse manager commitment	5-25	7	25	15.88 ± 3.54	3.18 ± 0.71
Patient relationships	4-20	8	20	13.97 ± 2.33	3.49 ± 0.58
Student satisfaction	4-20	4	20	14.21 ± 3.20	3.55 ± 0.80
Professor trust	27-135	79	133	105.29 ± 12.35	3.90 ± 0.46
Intimacy	8-40	18	40	27.70 ± 4.65	3.46 ± 0.58
Expertise	8-40	25	40	34.76 ± 3.72	4.34 ± 0.47
Teaching	5-25	13	25	21.12 ± 2.80	4.22 ± 0.56
Leadership	6-30	12	30	21.72 ± 3.94	3.62 ± 0.66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13-65	13	60	39.90 ± 8.02	3.07 ± 0.62
Vigor	6-30	6	28	17.06 ± 4.05	2.84 ± 0.67
Dedication	3-15	3	15	10.74 ± 2.36	3.58 ± 0.79
Absorption	4-20	4	19	12.10 ± 2.76	3.02 ± 0.69

타났다.

교수신뢰 정도는 3.90점이었으며, 4개 하부 요인 중 전문성이 4.34점, 강의능력이 4.22점으로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았고 지도력과 친밀감이 각각 3.62점, 3.46점으로 전체 평균평점보다 낮았다. 학업참여 정도는 3.07점이었으며, 3개의 하부 요인 중 헌신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몰두 3.02점, 열정 2.84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른 학업참여는 차이가 없었고,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직전 학기 성적 상 그룹이 중하 그룹, 하 그룹, 그리고 중상이하 그룹보다 학업참여 정도가 높았다.

3.1.4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의 관계

대상자의 학업참여는 임상실습교육환경($r=.38, p<.001$), 교수신뢰($r=.4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 또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11)

Variables	CLE	Professor trust
	r(p)	
CLE	1	
Professor trust	.46(<.001)	1
UWES-S	.38(<.001)	.40(<.001)

CLE=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UWES-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3.1.5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직전 학기 성적을 더미변수 처리하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를 투입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의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로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는 .50-.76으로 .10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31-1.99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정규성은 p-p plot으로 확인하였고 등분산성은 산점도로 확인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80~1.96였으며 Cook's distance 값은 모두 0.15이하로 나타나 기준 1.0 미만이므로 특이값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4. The factors related to UWES-S

(N=111)

Variables	UWES-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Academic score 1*	11.06	4.17	<.001	10.13	4.11	<.001	9.48	4.03	<.001
Academic score 2*	9.03	3.86	<.001	8.21	3.79	<.001	8.42	4.08	<.001
Academic score 3*	4.20	1.81	.073	3.31	1.54	.148	2.86	1.39	.166
CLE				0.28	4.40	<.001	0.17	2.52	.013
Professor trust							0.20	3.46	.001
	R ² =.196, Adj. R ² =.174			R ² =.321, Adj. R ² =.295			R ² =.390, Adj. R ² =.361		
	F=8.71, p<.001			F=12.50, p<.001			F=13.42, p<.001		

CLE=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Dummy variables; Academic score (Low=0, High=Academic score 1, Middle high=Academic score 2, Middle low=Academic score 3)

분석결과 직전 학기 성적 중상 이상,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학업참여를 36.1% 설명하고 있었다 (F=13.42, p<.001).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직전 학기 성적으로 상($\beta=9.48$, t=4.03, p<.001)과 중상($\beta=8.42$, t=4.08, p<.001)이 하보다 학업참여가 더 높았다. 교수신뢰 정도가 클수록($\beta=0.20$, t=3.46,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beta=0.17$, t=2.52, p=.013) 학업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와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간호교육환경을 포함한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은 3.28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선행연구[22]의 3.15점과 유사하였으며, Han[18]의 2.75점 보다 높았다. 5개 하부 요인 중 학생 만족이 가장 높았고 병동분위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2-23]에서도 학생만족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병동분위기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임상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해서 간호관리자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간호학생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실습관련 업무 수행을 지시함에 있어서 간호학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호관리자의 책임도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22]와 유사한 결과로 임상실습현장에서 수간호사의 교육적 역할이 간호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수간호사는 업무와 실습지도를 병행하는 실정으므로 임상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실습기관 내 환경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만족도가 멘토와의 관계, 간호사 교육자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24], 실습기관에서는 수간호사와 더불어 멘토로서의 역할을 갖춘 간호사도 실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간호대학과 더불어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교수신뢰는 3.90점으로 보건계열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연구결과[25] 3.72점과 유사하고,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의 연구결과[26] 4.37점 보다 낮다. 하부 요인 중 전문성과 강의능력은 전체 평균보다 높는데 Lee와 Kim(2016), Lee와 Kang(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교수-학생 간 신뢰감 형성을 위해 학술적 연구를 통해 학문에 이바지하고 강의의 충실도를 기함과 동시에 학습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학업참여는 3.07점으로 3개의 하부 요인 중 헌신이 가장 높고, 열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간호사가 되기 위한 소명의식의 근간을 헌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

단되며, 현실적으로 학업에 있어서는 학습에 몰두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은 다소 낮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기신뢰는 학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27]. 유사한 맥락의 연구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의 정도는 학습 몰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참여는 직전학기 성적 상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학점이 높을수록 학업참여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29]와 유사하다. 학업참여가 학습동기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수행이나 학업만족을 높이는 주요 요인[21]이자 학점취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30], 간호대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공에 몰두하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업 참여가 저조한 학생은 심층적 개별 면담을 통해 내외적 영향 요인을 진단하여 개별적으로 학생중심 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학업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전 학기 성적 중상 이상,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들의 학업참여에 대한 설명력은 36.1% 수준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2-26]에서도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은 높았고, 대상자와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도 교수신뢰는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여 학업에 만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교수와의 접촉 빈도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32]를 고려할 때, 교수자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공에 대한 학문적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지도하는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학생참여와 실습만족도 간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는Choi(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33]. 또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업무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34]. 간호대학생이 간호업무를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조직화하고 개별 학생의 능력 수준에 적합한 지도가 필요하다. Jayalakshmi 등의 연구[35]에서 실습을 지도하는 멘토의 역할이 실습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멘토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며, 학생의 의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하고 임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으로써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도 임상실습 지도 시 수간호사 등 간호관리자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습기관 차원에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간호사는 실습학생의 멘토로서 상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습지도의 효율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조사 연구이다. 회귀분석 결과 직전학기 성적과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는 모두 학업참여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학업참여는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수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참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교수신뢰에 대해 하부요인을 중심으로 교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적이며, 실현가능한 교수-학생 간 신뢰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임상실습교육현장의 실습생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 Griffin P., Care E.(2014). Developing leaner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kills.
- [3] ICN(2008), ICN Framework of Competencies for the Nurse Specialist.
- [4] WHO(2016), 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nursing and midwifery 2016-2020.
- [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www.kasbone.or.kr/kabon02/index04.php
- [6]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2017). The Result Analysis of Registered Nurse National Examination. <http://www.kuksiwon.or.kr/Publicity/ItemInfoDataView.aspx?SiteGnb=5&SiteLnb=3>
- [7] SB. Choi, MS. Lim,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and outcome of learning: focus on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ulty trust of undergraduate student. The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vol. 14, no. 3, pp. 65-84. 2012.
- [8] H. Park, Y. Han, M. Kim,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8, no. 4, pp. 567-580, 2013. DOI: <https://doi.org/10.18205/kpa.2013.18.4.005>
- [9] YE. Kwon, SY. Kim.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4, no. 1, pp. 80-88, 2018.
- [10] EY. Kim, SH. Ya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417-425, 2015.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417>
- [11] IS. Kwon, Y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25-33,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12] JH. Song, M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51-264,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13] K. Midgley,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26, no. 4, pp. 338-345, 200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5.10.015>
- [14] JA. Fredricks, PC. Blumenfeld, AH. Paris.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4, no. 1, pp. 59-109, 2004. DOI: <https://doi.org/10.3102/00346543074001059>
- [15] EA. Skinner, JP. Wellborn, JJ. Connell, What it takes to do well in school and whether I've got it: A 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and children's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no. 1, pp. 22-32,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2.1.22>
- [16] JA. Park, E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17] SV. Dunn, P. Burnett.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2, pp. 1166-1173, 199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 [18] J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5B, pp. 2595-260, 2010.
- [19] EL. Jeong, Y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fessor trust scale(P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8, no. 2, pp. 40 5-426, 2009.
- [20] WB. Schaufeli, L. Martinez, A. Marques-Pinto, M. Salanova, A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 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3, pp. 464-481, 2002.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21] H. Choo, W. Sohn, A validating academic engagement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ngagement, and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9, no. 3, pp. 485-503, 2012. DOI: <https://doi.org/10.16983/kjsp.2012.9.3.485>
- [22] EK. Lee, EJ. Ji.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3, no. 2, pp. 126-135, 2016.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6.23.2.126>
- [23] JY. Han, HS. Park.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3, pp. 365-372, 2011.
- [24] E. Papastavrou, M. Dimitriadou, H. Tsangari, C. Andreou.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 research study. *BMC Nursing*, vol. 15, no. 44, pp. 1-10, 2016. DOI: <https://doi.org/10.1186/s12912-016-0164-4>
- [25] EY. Lee, SH. Kim. Effect of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among allied health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6, no. 4, pp. 643-649, 2016.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4.643>

- [26] SY. Lee, YJ. Kang, Influence of instructor trust 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6, no. 5, pp. 687-693, 2016.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5.687>
- [27] SJ. Kim. Study on the process of colla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grounded theory modeling methodology,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1, no. 1, pp. 1-35, 2017.
- [28] HW. Kang. The verifi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learning flow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utdoor sport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 40, no. 2, pp. 18-29, 2016.
- [29] YA. Lah, JY. Lee, WH. Kim. Impact of students' characteristics on academic Engagement: a mixture modeling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1, pp. 369-390, 2016.
- [30] D. Flynn. Baccalaureate attainment of college students at 4-year institutions as a function of student engagement behaviors: social and academic student engagement behaviors matter.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55, no. 5, pp. 467-493, 2014.
DOI: <https://doi.org/10.1007/s11162-013-9321-8>
- [31] KN. Kim. Effects of profes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ofessor trust,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2, pp. 99-123, 2016.
- [32] EA. Kim, KI. Park. Factor Affecting Adjustment of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34-243,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234>
- [33] GY.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vol. 21, no. 1, pp. 129-139, 2009
- [34] C. P. Lovecchio, M. K. DiMattio, S. Hudacek. Predictor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 secondary analysi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july/august 2015, pp. 252-254, 2015.
- [35] J. N, K. Christian, SG. Joshi, S. Naidu. Evaluation of the effect of clinical nurse mentors assigned to nursing students upon level of satisfaction regarding clinical teaching-learn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2, pp. 40-45, 2017.
DOI: <https://doi.org/10.5958/0974-9357.2017.00033.2>

김 은 미(Kim, Eun Mi)**[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사, 전문간호사 보건의료인력정책

홍 지 연(Hong, Ji Yeon)**[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박사)
- 2009년 3월 ~ 2012년 2월 : 영진전문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감정노동,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수행능력

이 은 경(Lee, Eun Kyung)**[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